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과 지역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Social Distanc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Migrants

양 재 영 (Jae-Yeong Yang)* · 최 명 섭 (MyoungSub Choi)** · 고 진 수 (JinSoo Ko)***

〈 Abstract 〉

The study examines the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social distance to foreigner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in the region and the subjective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 social distance to foreigners, but the effect of objective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various regional index produced conflicting results. We analyzed the effects of objective local characteristics on perceptions of foreigners as well as perceived local environment by merging data including population,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Social distance to foreigners has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ethnics and groups. And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urbanization level, the worse the walking environmen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the more manufacturing enterprises, the higher the net population inflow, the more social distance.

키워드 : 외국인, 다문화사회, 사회적거리감, 지역특성

Keyword : Foreigner,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Dist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glorysheep@kw.ac.kr, 주저자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수료, mschoi@snu.ac.kr, 공동저자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realty@kw.ac.kr,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174만 명에 이르렀으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12곳에 달한다.¹⁾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체류 증가와 함께 진행된 정주화는 외국인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종구성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지만, 문화적 관용성이나 다문화주의 가치관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²⁾ 이와 관련하여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5)는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다양한 인종 간 이해와 관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와 개인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외국인 유입과 더불어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이 함께 확산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위해 소수가 느끼는 편견, 차별, 불편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외국인 지역을 다룬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인식을 지속해서 확장해오며 다문화주의를 지지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내국인의 사회적 편견, 차별로 인한 외국인과의 갈등과 마찰이 지역의 사회통합을 저해(박세훈, 2010)할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비용(박윤환, 2010)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 방안 및 연구는 원주민(내국인)의 인식이나 교류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2015. 1. 1.) 참조

2)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해왔으며 이질적인 상대를 인정하며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윤인진(2008)은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문화와 사회체계에 도전하지 않는” 조건 아래 외국인이 온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며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병두(2012)는 오늘날 다문화 정책 속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그들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배제주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의 인식과 상호작용의 방향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창의성과 개방성이 증진되며,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인종갈등, 슬럼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박세훈·정소양, 2010)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 분야에서 지역 내 토착민 집단과 이주민의 인종·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민지선·김두섭, 2013).

이처럼 상이한 결과에 대해 지역 요인을 함께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사회가 외국인인과 내국인의 실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점(조민지·임엽, 2017)과 더불어, 내국인의 개인적 요인 외에도 그들이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를 매개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점(박효민 외, 2016)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은 인종·사회·지역적 특성마다 영향과 결과가 상이하므로 보다 다양한 특성을 다룬 세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 차원에서 외국인 유입과 공간적 집중, 밀집지역, 공간분포 현황, 거주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변화의 방향을 다루었다.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역별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가정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 관해 국내 거주민의 인식이 개방 또는 배제 등의 행위로 드러날지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정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 행위 간 연관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범위가 특정한 사례대상지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이 갖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소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거리감은 인식과 태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인구·사회학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어 온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사회적거리감은 전국을 범위로 내국인의 인식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부 지역특성과 사회적거리감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향후 이러한 특성을 다룸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중 사회적거리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사회적거리감은 외국인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어느 수준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의도를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며, 사회·인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이다. 자료는 2010년 한국사회종합조사에서 구조화된 설문 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활용한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크게 개인특성과 지역특성으로 설정한다. 개인특성은 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를 통제하며, 지역특성은 지역을 설명하는 다양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어떠한 지역 환경이 이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TAT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외국인 유입과 밀집지역, 사회적거리감에 대한 이론과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분석대상과 자료의 선정,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외국인 밀집지역 연구에서 외국인 이주는 경제·사회·지역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로 이어지지만, 특정 인종이나 사회마다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와 인종, 상호관계 특성,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 이주민 유입이 직접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원주민의 잠재된 인식과 태도, 상호작용, 사회특성 등을 매개로 그것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에서 체류 외국인 거주지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의 밀집에 따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인구 및 지역특성을 관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밀집현황, 공간분포 특성, 거주지 분리, 거주지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박세훈, 2010; 김희철·안건혁, 2011; 정지은 외, 2011; 최은진·김의준, 2011; 김윤경 외 2014; 임현철·박윤환, 2014; 강현주·서정렬, 2016).

이러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 비율, 밀집지수를 통해 관련된 지역변수와 연관성에 대해 고

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희철·안건혁(2011)은 외국인 거주지역 선택요인으로 외국인 지역의 사회자본, 산업특성, 주거환경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전체 외국인의 거주지역 선택은 산업특성(제조건설업, FIRE산업), 외국인 커뮤니티에 정(+)의 영향을 받으며 주거환경 지표인 1인당 교육문화 종사자 수, 1인당 의사 수에는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가 주거환경을 고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지은 외(2011)는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요인으로 산업, 주택 측면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주거지 선택은 제조업 종사자 수, 내국인 인구 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월세 거주 비율, 외국인 지원센터 수에 정(+)의 영향을 받는다.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류외국인의 입지선택은 대부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며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경 외(2014)는 외국인 밀집지수를 다루며 산업특성, 주택특성, 주거환경, 교육환경,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외국인 밀집에 대해 제조업 종사자 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 사글세월세 가구 수, 금융기관 수, 종교시설 수, 외국인학교 유무, 국제교류기관 유무가 정(+)의 영향을, 단독주택 비율, 쇼핑·문화시설 수, 보육시설 수, 사회교육시설 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설입지가 제한적인 곳에 거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강현주·서정렬(2016)은 주거특성, 산업특성, 교육기관을 통해 외국인 거주지 특성을 파악하였다. 전체 외국인 수에 대해 내국인 인구 수,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여부, 제조업 고용자 수, 외국인 학교 유무, 고등교육기관 수가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외국인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유사한 변수에 대해 일관된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 비전문직 외국인의 밀집은 제조업과 내·외국인 인구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주거환경과 관련된 시설에는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밀집거주가 지역환경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자 한 연구도 존재한다. 박신영 외(2012)는 원주민들이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를 근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재연·김홍순(2013)은 외국인 밀집거주가 내국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해 장소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열악한 지역환경에 외국인 유입이 이

루어짐과 동시에 원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는 잠재된 인식과 다양한 특성 등을 매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관은 특정 지역환경에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일련의 행동과 함께 일치하게 나타나는가? 또한 외국인 유입에 따라 원주민의 부정적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이주민을 향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은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아 왔으며(박효민 외, 2016) 정치·경제, 사회·문화, 지역적 측면에서 원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지 그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우선,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향성이나 의도를 가리켜 사회적거리감이라고 한다. 사회적거리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로 볼 수 있는데, 설문 문항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 행동의사를 물음으로써 측정된다. 김유란(2015)은 사회적거리감에 대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의사를 묻는다는 것”,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행동적 요소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거리감은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지역특성이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인지·정서적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지역이 내외국인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 지역이 거주민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은 설명할 수 있다.

지역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인종 간 인접성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이론을 제시한다(박효민 외, 2016). 대표적으로 (인구)위협이론(threatening theory)과 접촉이론(contact theory)이 있다. 위협이론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높인다는 것, 접촉이론은 협력이 증대되고 부정적 고정관념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며 국내 연구에서 몇몇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원주민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율 상승은 위협이론에 따라서는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민지선·김두섭, 2013), 접촉이론에 따라서는 친분의 영향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이다은 외, 2016). 따라

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배타성은 기존 토착민의 인식에 따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민지선·김두섭(2013)은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사회적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해 외국인 비중이 정(+)의 관계를, 교육연수, 도시화 수준, 성별(남성)에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는 유의하지 않거나 인종별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다음 외(2016)는 접촉이론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외국인 비율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갈등 측면에서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문화 측면에서 농촌보다 도시가 외국인의 문화적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지역특성 중 외국인 인종구성, 비율은 인종 간 친밀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외에도 원주민이 근린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주민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된다. 다시 말해, 이주민과 대면 접촉, 직접적인 교류 경험 외에도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박효민 외(2016)는 이주민 밀집지역 내 사회적거리감에 대해 지역특성으로 거주지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체로 집단마다 성별, 외국인 밀집여부, 거주지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접촉여부는 사회적거리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이주민을 향한 낮은 친밀감은 지역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집단유입에 의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면서 슬럼화에 대해 저소득층 외국인 밀집지역의 거주만족도, 치안 문제, 주택가격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만족도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치안 문제는 전국대비 높은 범죄율이 연관되며 주택가격은 외국인 유입이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지만, 저소득층 외국인 밀집은 이러한 영향력이 낮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사회적거리감과 관련된 변수는 개인특성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이 다루어졌으며, 지역특성으로 외국인 비율 등의 밀집요인, 도시화수준 등의 인구밀도 요인, 거주지 환경요인 등이 다루어졌다.

3) 이러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의 인종뿐만 아니라 출신국가의 경제력 등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점, 이러한 고정관념은 경제력이 투영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다.

〈표 1〉 거주지역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결정요인 변수 정리

구분	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변수
지역 연구	김희철· 안건혁 (2011)	서울/인천 지역 내 총 외국인 비율	수도권(서울, 인천) 여부, 외국인 커뮤니티 유무(+) , 외국인 학교 유무, 제조건설업 입지계수(+) , FIRE산업 입지계수(+) , 1인당 교육문화 종사자 수(-) , 1인당 의사 수(-) , 주택 지가지수 변화율
	정지은 외 (2011)	수도권 시군구별 외국인 거주자 수	총 종사자 수(+) , 내국인 인구 수(+) , 제조업종사자 비율(+) , 월세 거주 비율(+) , 외국인 학교 수, 외국인 지원센터 수(+) ,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김윤경 외 (2014)	부산시/진주시 외국인 밀집지수	종사자 수(제조업(+) ,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단독주택비율(-) , 아파트비율, 사글세·월세 가구 수(+) , 1980년 이전주택 수, 병의원 수, 쇼핑,문화시설 수(-) , 금융기관 수(+) , 보육시설 수(-) , 종교시설 수(+) , 초중고대학 수, 사회교육시설 수(-) , 외국인 학교 유무(+) , 국제교류기관 유무(+) , 공관문화원 유무, 외국인 지원기관 유무
	강현주· 서정렬 (2016)	부산시 전체 외국인 수	내국인 인구 수(+) , 밀집 거주지역 여부(+) , 월세·사글세 비율, 사업체 수, 제조업 고용자 수(+) , 외국인 학교 유무(+) , 고등교육기관 수(+)
사회적 거리감 연구	민지선· 김두섭 (2013)	사회적거리감 (7개 문항 합산 점수)	성별(남성)(-) ,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 가구소득, 직업(블루칼라 여부), 주관적 거주지역 도시화수준(-) , 지역 인구밀도, 지역 외국인 비중(상·중·하)(+)
	이다은 외 (2016)	1) 이민자 유입과 갈등 심화 2) 정부 노력과 갈등심화 3) 이민자와 문화 개선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율(+) , 주관적 거주지역 도시화수준(-)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수입, 종교 유무, 정치성향
	박효민 외 (2016)	사회적거리감 (7개 문항 평균 점수)	성별(여성)(-) , 연령, 거주지역(-) , 학력, 취업, 가구소득,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대인신뢰, 상호작용 이주민수, 이주자 대면접촉 여부, 주관적 거주지 환경(-) ,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주: 해당 연구 중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괄호() 안에 부호를 표기하였으며 이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방향성을 나타냄

종합하자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는 외국인 밀집이 지역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개별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그들에게 실제로 차별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토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학 분야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을 다룬 연구는 인

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비율, 인구밀도 등을 설명하며, 여기에서 지역 특성은 원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환경을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역환경이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다양한 지역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이 가지는 사회적거리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특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분석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외국인 밀집을 확인하며 내국인의 사회적거리감에 대해 각 지역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외국인은 국내 90일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인, 미국인, 유럽인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한국사회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한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매년 전국을 범위로 실시하는데,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는 2010년 자료이다. 조사는 2010년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인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1,576명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KGSS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거리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거리감의 측정은 보가더스(Bogardus) 척도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보가더스 척도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데 사용(Wark and Galliher, 2007; 김석호 외(2013) 재인용)”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결혼-친구-직장동료-이웃-지인-국민-방문객 순으로 중요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KGSS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1)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2)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 3) 동료로 지내는 것, 4) 이웃이 되는 것, 5) 친구로 지내는 것, 6)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7) 내 배우자가 되는 것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친구로 지내는 것”을 찬성한다면 동료, 이웃, 지인 등 비교적 아래 위계의 관계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거리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가더스 척도를 사용하지 만 이와 같은 위계를 획일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⁴⁾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거리감의 바람 직한 척도 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기존 인구·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가더스 척도의 문항을 기초로 항목 의 합계 또는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이 대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척도의 위계를 반영하지 않고 항목별 값을 단순 합산하였다.⁵⁾ 따라서 각 관계를 묻는 항목 은 찬성일 경우 ‘0’ 값을, 반대일 경우 ‘1’ 값을 가지게 되며 각 인종집단은 총 7개 항목이 합산되므로 ‘0부터 7까지’ 값을 가질 수 있다.

독립변수는 2장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대인신뢰, 정치성향을 포함하여 개인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 밖에 외국인 유입과 사회갈등, 일자리 문제와 같은 부정적 통념을 포함함으로써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형을 정교화하였다.

지역특성은 크게 주관적 특성과 객관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관적 특성은 응답자 가 인지하는 근린환경이며 본 연구에서 객관적 특성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화수준은 인구밀도 등으로도 설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응 답자의 거주지마다 인구밀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적 특성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수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것보다 거주자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 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장점(이다은 외, 2016)이 있다. 그밖에 근린환경과 관련하여 동네가 조깅이나 걷기 같은 운동에 적합한지, 동네에 공공시설이 충분히 있는지, 동네가 안전한지, 동네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 측정 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객관적 특성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

4) 보가더스 척도는 미국에서 1960년대 개발된 것으로 그것이 개발된 시대적 맥락을 따르지 않은 채 다른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김석호 외, 2013)이 있다.

5) 사회학 분야에서 사회적거리감 척도 활용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기도 하지만 조사된 척 도 값을 합하거나 평균을 내는 것으로 대안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를 참조할 수 있다. (인태정, 2009; 노성훈, 2013; 민지선·김두섭 2013; 이상신, 2015; 전대성·이주실, 2015; 박효민 외, 2016)

〈표 2〉 변수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값	평균
중속 변수	사회적 거리감	각 인종마다 7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응답 수를 합산	최소 0 최대 7	(전체) 2.638
개인 특성	성별	응답자 성별	남자=1, 여자=2	-
	연령	응답자 연령(세)	최소 18 최대 92	48.4
	교육수준	응답자교육수준	무학=0 ~ 대학원(박사)=7	-
	직업	응답자 직업	고위임원 및 고위공무원 =1 ~ 단순노동자=9	-
	소득	응답자 소득	소득없음=0 ~ 1000만원=1000	368.2
	대인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항상 신뢰할 수 없다=1 ~ 항상 신뢰할 수 있다=5	2.656
	정치성향	정치적 성향	진보적=1, 중도=2, 보수적=3	-
	갈등심화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3.423
일자리문제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2.864	
인지 지역 특성	도시화수준	주관적 거주지역	큰 도시=1, 큰 도시 주변=2 작은 도시=3, 시골마을, 외딴곳=4	-
	보행환경	동네가 “조깅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3.985
	공공시설	동네에 “공공시설이 충분히 있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3.367
	안전	동네가 “안전하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3.530
	이웃관심	동네에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보인다”	매우 반대=1 ~매우 찬성=5	3.050
지역 특성	상이지수	ln(거주자 지역(동,읍) 분리지수)	최소 -11.51 최대 -5.7	-8.498
	제조업 사업체	제조업 사업체 수(개)*	최소 17 최대 3,136	602.2
	1인당지방세	1인당 지방세 부담액(천원)*	최소 39 최대 3,255	741.1
	순인구유입	순인구이동수/전체인구 수(%)*	최소 -3.36 최대 11.62	0.112
	아동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개소 수*	최소 24 최대 369	135.7
	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개소 수*	최소 7 최대 89	40.2
	병원	병원 개소 수*	최소 44 최대 2,302	544.4
	교통사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수*	최소 37 최대 202	114.4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개소 수*	최소 0 최대 17	3.976
	공원	공원 개소 수*	최소 0 최대 329	121.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개소 수*	최소 0 최대 64	8.432
	주차장	주차장 개소 수*	최소 4 최대 308	89.0
	도서관	도서관 개소 수*	최소 1 최대 15	5.989

주: 상이지수를 제외한 지역변수(*)는 지역구·군 수준의 특성임

저 밀집을 확인하기 위해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산출한다. 상이지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집단의 주거패턴을 균일성(evenness)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거주지 분리의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들 중 균일성이 핵심적이며 상이지수는 가장 효율적인 측정도구로 활용된다(박윤환, 2010). 상이지수는 내국인 비중과 외국인 비중의 차를 나타내며 수식 (1)은 이를 산출하는 수식이다. x_i 는 내국인의 전체지역 인구 수 대비 i 지역 인구 수 비율이며, y_i 는 외국인의 전체지역 인구 수 대비 i 지역 인구 수 비율이 된다.

$$D = \frac{1}{2} \sum_i |x_i - y_i| \quad (1)$$

본 연구에서 상이지수의 지역 i 은 KGSS에서 조사한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은 동·면 단위이며 각 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병합하였다. 다른 변수들은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앞서 주관적 지역특성에서 응답자가 인지하는 보행환경, 공공시설, 안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에 지역변수는 인구, 경제, 교육, 의료, 문화, 공원, 교통, 사회복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료는 KGSS와 동일한 시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2010 한국도시연감을 활용하였다. 한국도시연감의 데이터는 지역구·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변수들을 토대로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인종별, 집단별 사회적거리감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했으며 그 값은 최대 7.58, 평균 2.11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서 인종은 크게 동양, 서양으로, 집단은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그 특성이 중국인과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별도로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의 특성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 및 <표 5>과 같다.

분석에 앞서 사회적거리감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외국인은 2.638로, 동양은 2.796, 서양은 2.330으로 동양에 대한 거리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로 보

면 중국동포 3.143, 중국 3.553, 일본 2.270, 동남아 2.175, 미국 1.546, 유럽 1.293으로 확인되어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Adj. R2)은 전체외국인 0.132, 동양 0.123, 서양 0.110, 그밖에 집단별 외국인에 대해 0.083~0.124로 나타났다.⁶⁾

사회적거리감의 결정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개인특성에서 성별, 교육수준, 대인신뢰, 정치성향, 갈등심화, 일자리문제로, 지역특성에서 도시화수준, 보행환경, 상이지수, 제조업 사업체 수, 순인구이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개인특성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사회적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타인을 경계할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거리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된 거주환경에서 도시화수준은 응답된 '큰 도시'를 기준으로 모든 지역에 서 사회적거리감이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일수록 다양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에 비해 관용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인과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민지선·김두섭(201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화수준에 관계없이 중국인과 중국동포에게는 사회적거리감의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화 수준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 및 도시화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내 근린 규모로 측정된 자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환경 변수는 중국인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보행환경은 걷거나 조깅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린환경에서 거리감이 높은 것

6) 인종과 사회적거리감과 관련한 연구에서의 설명력(Adj. R2)은 대체로 0.04~0.15로 확인된다(민지선·김두섭, 2013; 박효민 외, 2016; 이명진 외, 2010; 인태정, 2009). 관련 연구들을 볼 때 개인적 차원의 발생요인에 대한 측정자료가 구축되지 불가능하여 통제변수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연하자면 사회적거리감은 현실적 갈등, 집단범주화에 근거한 사회적 정체감, 어렸을 때부터의 사회화 과정, 고정관념 등 인지적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점차 정서적, 감정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전영자·전예화, 2010). 따라서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 역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지의 지역환경에 부정적인 경우 사회적거리감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박효민 외, 2016)한다. 교통사고 빈도나 공원의 수도 보행환경과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행환경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절한 환경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공간이 동일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적합한 환경이란 범죄 위험, 쾌적성, 청결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신영 외(2012)는 주민들은 외국인이 주변 환경에 대해 자발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함을 설명하면서 이질감이나 냄새 등에 대해 측정된 인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으로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거리감과 보행환경에 대한 연관성만을 설명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보행환경 측정 및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병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개소 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상이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 내 외국인 집중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 또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배타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결과(민지선·김두섭, 2013)를 보이고 있다.⁷⁾ 특이한 점은 미국인과 유럽인도 상이지수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거리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후진국 출신의 인종집단에 대해 발견된 것이므로 특기할 만하다.

제조업사업체수는 동양, 특히 동남아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연구(정지은 외, 2011; 김윤경 외, 2014; 강현주·서정렬, 2016)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주된 집단은 동남아인으로 나타나므로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동남아인은 주로 저소득, 비숙련 체류외국인으로 지역의 제조업사업체와 연관되어 집적하며 동시에 그들이 유입되어 거주하는 환경이 열악하기에 사회적거리감

7) 다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거리감은 각 인종에 대해 측정되어 있지만 상이지수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높은 상이지수를 가지더라도 곧 해당 인종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지선·김두섭(2013)은 지역의 외국인 비중과 사회적거리감에 관한 연구에서 개별 인종의 인구비중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지만, 전체 외국인 비중만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전체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한 상이지수를 적용하였다.

〈표 3〉 인종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외국인	동양	서양
		coef.	coef.	coef.
상수항		2.433	2.833	1.609
개인 특성	성별(남성기준)			
	여성	0.356^{***}	0.397^{***}	0.271^{***}
	연령	-0.000	-0.000^{***}	-0.000
	교육수준	-0.148^{***}	-0.163^{***}	-0.118^{***}
	직업	0.044	0.040	0.046
	소득	-0.000	0.000	0.000
	대인신뢰	-0.123^{**}	-0.135^{***}	-0.097^{**}
	정치성향(중립)			
	진보적	-0.079	-0.078	-0.091
	보수적	0.286^{**}	0.311^{***}	0.226
	갈등심화	0.242^{***}	0.249^{***}	0.224^{***}
	일자리문제	0.319^{***}	0.332^{***}	0.296^{***}
인지 지역 특성	도시화수준(큰도시)			
	큰도시주변	0.333^{**}	0.293^{**}	0.405^{***}
	작은도시	0.363^{**}	0.315^{**}	0.449^{***}
	시골	0.524^{**}	0.427[*]	0.695^{***}
	보행환경	-0.041	-0.071	0.025
	공공시설	0.029	0.036	0.020
	안전	-0.025	-0.017	-0.046
	이웃관심	-0.011	-0.016	-0.004
지역 특성	상이지수	0.162^{***}	0.168^{***}	0.146^{**}
	제조업사업체수	0.000	0.000[*]	0.000
	1인당 지방세	0.000	0.000	0.000
	순인구이동	0.062[*]	0.067[*]	0.052
	아동교육시설	0.001	0.001	0.000
	교육시설	0.000	0.000	0.000
	병원수	0.000	0.000	0.000
	교통사고	0.001	0.002	0.001
	문화시설	0.018	0.015	0.024
	공원	-0.002	-0.002	-0.001
	사회복지시설	0.007	0.009	0.001
	주차장	-0.001	-0.001	0.000
도서관	-0.017	-0.016	-0.017	
Adj. R2	0.132	0.128	0.110	
샘플수	1153	1155	1162	
사회적거리감 평균	2.638	2.796	2.330	

주1: 성별, 정치성향, 도시화수준 더미변수에서 괄호() 안은 기준변수

주2: *** 99%에서 유의함, ** 95%에서 유의함, * 90%에서 유의함.

〈표 4〉 집단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외국인	중국동포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상수항	2.433	3.143	3.553	2.270	2.175	1.546	1.293	
개인 특성	성별(남성기준)							
	여성	0.356***	0.633***	0.250*	0.319**	0.367***	0.221*	0.342***
	연령	-0.000	-0.000***	-0.000	0.003	-0.011**	0.004	0.010**
	교육수준	-0.148***	-0.248***	-0.119*	-0.125**	-0.128**	-0.083	-0.128**
	직업	0.044	0.004	0.038	0.058*	0.038	0.048	0.045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인신뢰	-0.123**	-0.147**	-0.168***	-0.089	-0.134**	-0.100*	-0.096*
	정치성향(중립)							
	진보적	-0.079	-0.105	-0.120	-0.053	-0.065	-0.148	-0.039
	보수적	0.286**	0.399***	0.325**	0.215	0.320**	0.187	0.253*
	갈등심화	0.242***	0.211***	0.294***	0.224***	0.266***	0.218***	0.219***
	일자리문제	0.319***	0.293***	0.325***	0.357***	0.354***	0.269***	0.323***
	인지 지역 특성	도시화수준(큰도시)						
큰도시주변		0.333**	0.195	0.237	0.275	0.447**	0.384**	0.435***
작은도시		0.363**	0.247	0.206	0.407**	0.379**	0.473***	0.444**
시골		0.524**	0.367	0.446	0.378	0.466*	0.742***	0.653***
보행환경		-0.041	-0.094	-0.105*	-0.054	-0.011	0.052	-0.005
공공시설		0.029	0.055	0.076	0.006	0.028	-0.003	0.049
안전		-0.025	-0.018	-0.019	-0.060	0.020	-0.049	-0.055
이웃관심		-0.011	-0.041	-0.029	0.018	-0.008	-0.033	0.018
상이지수		0.162***	0.148*	0.229***	0.135	0.155*	0.138*	0.158*
제조업사업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인당 지방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순인구이동	0.062*	0.088***	0.081*	0.061	0.043	0.055	0.051	
아동교육시설	0.001	0.001	0.002	0.000	0.001	0.000	0.000	
교육시설	0.000	0.001	-0.003	0.001	-0.001	0.001	-0.000	
병원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교통사고	0.001	0.004	0.002	0.000	0.003	0.001	0.001	
문화시설	0.018	0.013	0.019	0.019	0.007	0.025	0.021	
공원	-0.002	-0.002	-0.002	-0.002	-0.000	-0.002	-0.001	
사회복지시설	0.007	0.013	0.008	0.008	0.009	0.001	0.001	
주차장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도서관	-0.017	-0.004	-0.006	-0.014	-0.039	-0.015	-0.016	
Adj. R2	0.132	0.110	0.083	0.100	0.101	0.091	0.124	
샘플수	1153	1164	1164	1164	1162	1164	1162	
사회적거리감 평균	2.638	2.552	3.042	2.757	2.851	2.264	2.394	

주1: 성별, 정치성향, 도시화수준 더미변수에서 괄호() 안은 기준변수

주2: * 90%에서 유의함, ** 95%에서 유의함, *** 99%에서 유의함.

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동남아인의 경우 제조업사업체 수가 사회적거리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제조업사업체가 많은 지역환경이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로 인해 증가한 외국인 인구비율의 영향은 상이지수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지역환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순인구유입 변수의 경우 지역의 순인구유입 또는 유출에 따라 거리감이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동양, 중국인 및 중국동포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국인 인구유입이 높은 지역에서는 비전문직, 후진국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잠재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김준형(2016)은 결혼이민자, 전문직 체류자격, 한국계중국인(중국동포), 일본과 미국인 등 집단에서는 내국인의 증가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비전문직이거나 후진국 국적 등은 내국인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동시에 특정 외국인 계층은 지역의 인구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참조하여 해석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편견 등 지역적·사회적 갈등으로 초래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내국인 주민에게 내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이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형성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회적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유입과 밀집지역 특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기존 인구·사회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사회적거리감의 개념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들을 참조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거주자의 개인특성, 인지된 지역환경과 더불어 인구, 경제특성, 물리적 시설 등의 지역특성이며 이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인종 집단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도시화 수준, 보행환경, 상이지수, 제조업 사업체수, 순인구유입이 사회적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성이 내국인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실증적으로 보완한

점, 또한 지역특성이 사회적거리감으로 설명되는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적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지역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내국인에게 내재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의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정책은 개인을 넘어 지역과 환경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류사회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들과 동일한 집단, 체류자격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거주환경을 비롯한 제반 문제로 확대되고 내국인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정착한 외국인이 가구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됨에 따라 고착될 우려가 있으며 유입이 가속될 경우 단순한 거주환경을 넘어 주거, 교육, 문화와 관련한 도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도시문제로 인한 지역적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이 비중이 큰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광역,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화수준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은 큰 도시보다 시골, 작은 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 내재한 갈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적, 행정적 여건이 열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광역, 중앙 차원에서 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정 외국인 밀집지역의 보행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특히 중국인 밀집지역은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환경 악화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보행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변 지역과 고립되어 보행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적응 교육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갖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는 통제변수로 선정한 교육, 대인신뢰 등의 개인변수는 사회적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인구나 사업체에서 비롯된 어떠한 요인이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대안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커뮤니티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지역특성 중 도시화 수준과 보행환경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에 대해 분석하기에 실제 거주환경의 객관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인구유입이나 사업체수는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각 지역마다 거주환경의 미시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구축된다면 더욱 정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와 연관되어 있으나 설문자료의 한계로 응답자와 외국인 접촉, 교류 등의 관계나 경험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높다면 접촉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기존 구 단위의 범위에서 살펴보던 외국인 연구에 비교해 동 단위에서 외국인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세부적인 지역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해 실제로 더 높은 접촉빈도로 이어지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체류자격,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종과 집단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현주·서정렬, “부산시 외국인 거주자의 거주 실태 및 특성 분석,” 「부동산·도시연구」, 제8권 제2호, 부동산도시연구원, 2016, pp.39-64.
2. 김석호·신인철·하상응·정기선,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제36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13, pp.1-20.
3. 김유란,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태도에 따른 영상물 프레이밍 효과 연구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 제18집,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원

- 구소, 2015, pp.19-54.
4. 김윤경·문태현·허선영·정윤영,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제12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4, pp.1-15.
 5. 김준형, “외국인 유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인구나 내국인 인구 변화간 관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학 논집」, 제15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6, pp.23-37.
 6. 김희철·안건혁, “이주희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국토계획」, 제46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pp.233-248.
 7. 노성훈, “외국인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pp.151-184.
 8. 민지선·김두섭,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6권 제4호, 한국인구학회, 2013, pp.71-94.
 9.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pp.69-100.
 10. 박세훈·정소양,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제64권, 국토연구원, 2010, pp.59-76.
 11. 박신영·김준형·최막중,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제47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pp.217- 230.
 12. 박윤환,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pp.429-453.
 13. 박효민·김석호·이상림,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2016, pp.105-138.
 14.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한국사회학회, 2008, pp.72-103.
 15. 이명진·최유정·최셋별,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10, pp.63-85.
 16. 이다은·이윤아·고혜빈,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 도농간 외국인 접촉 맥락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6, pp.588-604.
 17. 이상신,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5, pp.39-67.

18. 인태정,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p.339-369.
19. 임현철·박윤환,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공간적 패턴: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4, pp.1908-1923.
20. 전대성·이주실, “사회참여가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pp.197-218.
21. 전영자·전예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10, pp.1-13.
22. 정지은·하성규·전명진,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pp.117-129.
23. 조민지·임엽,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의 관용도와 이주민이 인지하는 차별정도의 관계,” 「국토계획」, 제52권 제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pp.45-65.
24. 최병두,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 과제,” 「국토」, 제364권, 국토연구원, 2012, pp.44-51.
25. 최은진·김의준,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pp.85-107.
26. 최재연·김홍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소이미지 및 만족도의 내·외국인간 차이에 관한 연구 -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8권 제7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pp.37-54.
27.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201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 2017. 08. 01. • 심사일 2017. 08. 07. • 심사완료일 2017. 10. 07. |
|---|

국문요약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과 지역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성이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역의 외국인 비중이나 거주자가 인지하는 환경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로 표현되는 객관적 지역특성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경제 특성, 물리적 시설 등을 포함한 자료를 병합함으로써 인지된 지역환경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역특성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종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도시화 수준은 낮을수록, 보행환경이 적절하지 않을수록, 외국인비중이 높을수록, 제조업 사업체수가 많을수록, 순인구유입이 높을수록 사회적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정책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을 고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적 여건은 열악하고, 외국인의 비중이 큰 지역의 경우 광역·중앙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류외국인의 적응교육뿐 아니라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하며, 생활환경 차원에서는 지역의 보행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